

## 한글손편지

선우 오빠에게

선우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 사는 5학년 배소은이라고 해요. 오빠가 학교에서 범호 패거리한테 괴롭힘을 당한다고 들었어요. 학교 폭력은 정말 나쁜데 오빠가 학교 폭력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풀었고 뒤늦게라도 범호 패거리에게 돈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해 오빠가 자랑스러웠어요. 범호 패거리도 그 후로 더이상 오빠를 괴롭히지 않아 다행이에요. 하지만 오빠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저는 좀 답답했어요. 제가 오빠였다면 범호 패거리들에게 바로 싫다고 말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빠가 판타지아에 더 빠져들었고 결국에는 윈지 언니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윈지 언니의 용감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오빠를 구해주었고 용기를 불돋아 주어 오빠가 용기를 내어 범호 패거리한테 맞서게 되었지요. 또한 판타지아에서 범호 패거리를 윈지 언니가 물리쳐 주기도 했지요. 정말 통쾌했어요. 그리고 정말 부러웠어요. 이렇게 오빠를 위해 도와주는 짝친구가 있구나. 저도 친구들에게 마음을 다해 대한다면 저도 친구들의 짝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저에게 짝친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윈지 언니가 가상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오빠가 판타지아에서 윈지 언니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였어도 소중한 친구를 위해 오빠처럼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판타지아를 폭파할 생각을 했어요? 원지언니를 위해 돕는 오빠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판타지아가 폭파한 뒤에 후회도 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원지 언니를 볼 수 없으니까요. 제가 오빠였어도 소중한 친구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어요. 원지 언니의 아با이신 하이드의 하상민 대표를 믿고 게임 속에서 원지언니와 영원히 살 수도 있었겠지만 원지 언니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 폭파를 결심했다는 것에 결연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마치 내 일이 된 것처럼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했어요.

빛은 파머리는 오빠에게서 돈을 뺏지 못해 재우 오빠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판타지아가 폭파한 뒤에 용기를 얻은 오빠는 원지 언니가 오빠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재우 오빠를 도와주었을 때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타지아에서 원지 언니와 함께 한 시간 때문에 오빠가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원지와 만난 세계는 가짜였지만, 원지와 만난 기억은, 원지와 함께한 경험은 진짜라는 것을. 원지가 남겨준 빛은 자기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올 것이라는 사실.' 오빠가 깨달은 이 말이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 레벨 업>을 읽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책에서 일어난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위험하고, 힘들고, 슬픈 일일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오빠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였다면 스포프고 무서워서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안전하게 잘 끝내서 다행이에요. 저는 오빠 덕분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친구와 하고 폭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오빠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 감사해요. 안녕!

2022년 8월 11일

-배소은 드림-